먹거리시장에 부는 '동물복지' 바람

'미닝아웃' 소비 확산에 동물복지 식품 매출 20% 이상 증가
농식품부 조사, 동물복지 식품 구매하겠다 응답 59.9% 차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소신 있는 소비를 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경향이 주를 이루면서 동물복지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동물복지 식품 매출은 1년 전 보다 24.4% 증가했다.

이들 매장에서 동물복지 달걀 매출은 34.8% 증가했고 동물복지 돈육도 26.3%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복더위를 앞두고 동물복지 닭고기 매출도 12.1% 뛰었다.

동물복지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동물복지 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뜻한다. 이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등 총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동물권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동물복지 축산물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5월부터 모든 점포에서 무항생제 인증 생닭(토종닭 제외)만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복지 계란'도 전품목 무항생제 인증 상품으로 품질을 한 단계 높였다. 동물복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으로, 바닥면적 1㎡당 성계 9마리 이하의 사육 밀도를 포함한 약 140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 초복(16일)을 앞둔 지난 9일부터는 대형마트 최초로 '무항생제 영계'를 선보였다.

무항생제 영계는 외부 오염물질과의 접촉 없이 약 30일 동안 건강하게 자란 닭이다. 일반적인 무항생제 계육 농가들은 영계보다 크기가 크고 평균 사육기간이 2~5일 가량 짧은 일반 닭을 키우기 때문에 '무항생제 영계'를 대형마트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임승현 이마트 계육 구매 담당자(바이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름보양식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이에 폭염에 기력을 보충하며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무항생제 영계를 대형마트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동물복지 닭고기 매출도 2018년과 지난해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0.5% 늘었다.

한편 전남지역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은 지난해 말 기준 25곳으로, 전국 262개 농장의 9.5%를 차지한다. 축종별로 보면 산란계 16곳, 육계 8곳, 양돈 1곳 등이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식품을 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9%를 차지했으며, 동물복지 식품을 구매한 사람의 25.3%는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나로마트 등 전남 360개 매장 식품안전 관리

농협 전남본부 직원들이 한 하나로마트에서 신선 농축산물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하나로마트 등 농협 소속 전남 360여개 유통매장이 9월 말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하절기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안전 점검 대상은 전남 360여 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축산물판매장 등이다.

전남본부는 5대 중점추진 사항인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유통기간 임의 연장·변조 ▲부적합(썩거나 산한) 상품 진열·판매 ▲허위과대광고표시(질병예방 또는 치료효능) ▲음식물 재사용(즉석판매제조)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농협의 모든 계통판매장은 '코너별 자체 점검 항목'을 지정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를 하고 '식품 기본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하절기에도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에 여행도 비대면 시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29일까지 홈캉스 기획전

여행을 가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즐기는 피서철 휴가족이 늘면서 대형 유통가가 관련 마케팅을 준비했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점포 1층 특설매장에서 '언택트(비대면) 여행'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과 '홈캉스'(홈+바캉스), 캠핑 등 비대면 여행에 필요한 제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차 안에서 시원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차량용 쿨러백(10·1만8200원)과 탁상용 선풍기(2만5900원), 핸디형 선풍기(8900원), 보냉 미니런치백(5000원), 쇼핑카트(50ℓ·7000원), 메모리폼 매트(9500원) 등이 대표적이다.

집에서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는 전기그릴(4만2000원)과, 회전 서큘레이터(3만6000원), 아이스트레이(3300원) 등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동안 생활용기 브랜드 '락앤락' 특집전도 열리며 인기 상품을 최초 정상가 대비 75%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양남균 광주월드컵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여름휴가 또한 비대면 여행이 대세"라며 "비대면 여행에 필요한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휴가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그릇도 엣지있게"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르크루제' 매장에서 홈파티(Home Party)용으로 내놓은 '피쉬디쉬' 식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이달 말까지 30%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신세계면세점, 재고면세품 전문 모바일 앱 출시

31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

신세계면세점은 면세품 내수 판매를 위한 전문 온라인몰인 'SSG 스페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SG 스페셜은 지난 6일 첫 개점해 시험 운영을 거쳤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안드로이드용으로, 아이폰 등 다른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SSG 스페셜에서는 블랑팡, 브라이틀링 등 명품 시계 브랜드를 포함한 총 31개 브랜드의 상품이 판매되며, 할인율은 면세점 정상가 대비 최대 50%다.

브랜드와 상품은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SSG닷컴 등 기존 계열사 온라인몰에서도 재고면세품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에는 오프라인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마트 피코크 맛 보장제도 "믿고 먹어요"

4~7월 전년비 46.3% 증가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정간편식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4~7월 가정간편식 피코크 상품 매출은 1년 전 보다 4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객이 직접 상품을 평가하는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 한 달 간 매출은 41.8% 급증했다.

이 제도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이외에도 '피코크 맛 평가단'을 운영하며 2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피코크 상품은 2013년 250여종으로 출발해 올해 1500여 종 상품으로 확대됐다. 피코크 밀키트(Meal Kit) 품목 또한 총 80여 종에 이르며 향후 2022년까지 총 150종 규모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신선 농축산물 최대 1만원 할인권 제공

정부가 신선 농축산물을 20%(최대 1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까지 농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에 참가할 온·오프라인 유통사를 모집하고 할인권 지급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할인권 지급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내수를 촉진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권(쿠폰)의 할인율은 20%로, 최대 1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참여 유통사는 오프라인 마트, 민간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할인권 지급과 홍보를 맡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